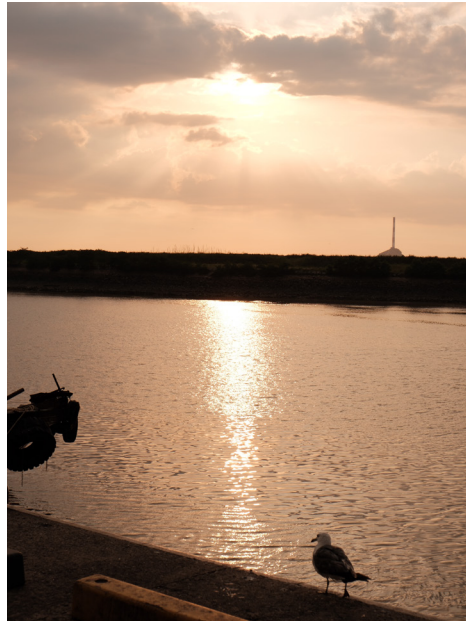


GUNSAN WAVE

군산웨이브

군산시 청년들 우만컴퍼니
중앙청년지원센터 WUMAN.CO.KR/WAVE

여름의 끝, 기록의 시작



© 김채현

Summer Ends,
The Record Begins

여름의 끝, 기록의 시작

**Summer Ends,
The Record Begins**

여름의 끝, 기록의 시작

GUNSAN WAVE

GUNSAN WAVE는

군산의 여성 청년 8인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서 있는 도시를 기록한 프로젝트다.

‘편’의 사진은 빛이 남긴 자국이고,

‘우리의 리듬 우리의 언어’의 문장은 시간의 흔적이다.

도시 군산이 각자의 프레임 속에서 일렁인다.

오래된 건물과 역사가 얹힌 골목,

산단을 비추는 일출과 바다를 물들이는 일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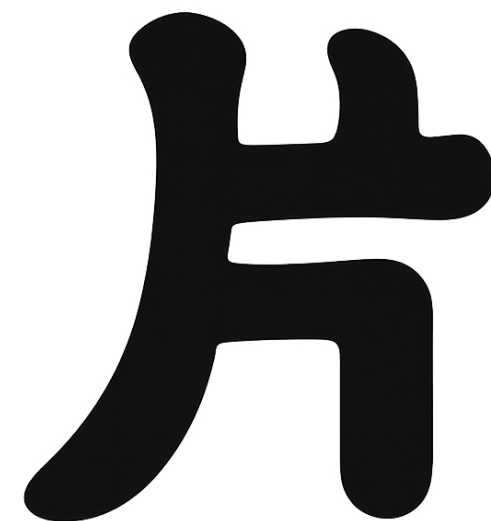
군산을 살아내며 써 내려간 저마다의 물결이

일상의 파편으로 모여 군산의 리듬이 된다.

전시 도록 다운로드

WUMAN.CO.KR/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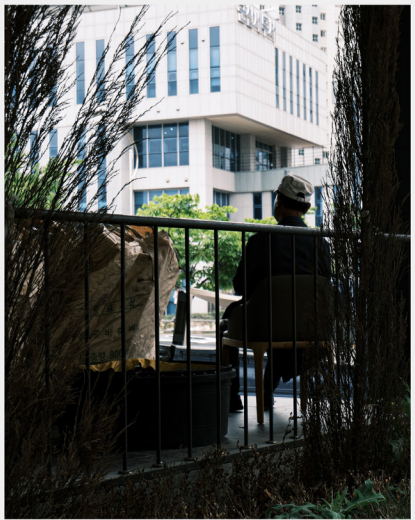
p.8
김채현

p.20
남궁다희

p.32
최다움

p.44
다 영

p.56
보리와 다영



김채현

따스한 일상을 느리게 관찰하며 담습니다.

사람들의 분주한 손 끝과 숨 고르는 장면들,
대비되는 풍경이 왠지 모를 위안을 준다.











남궁다희

호기심 많은 시선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담는다.

틈 사이로 보이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일상 속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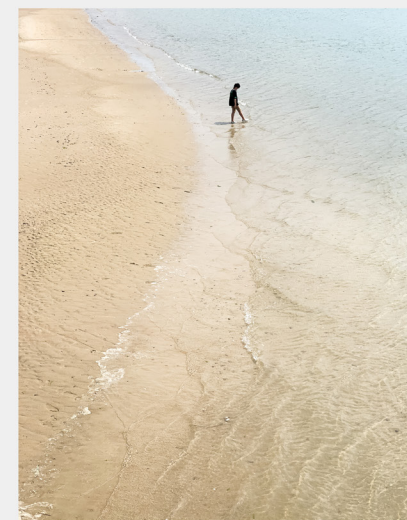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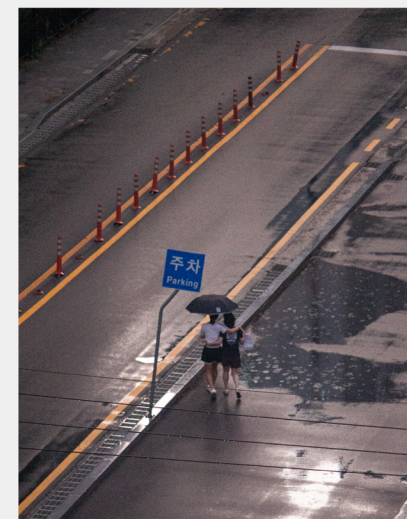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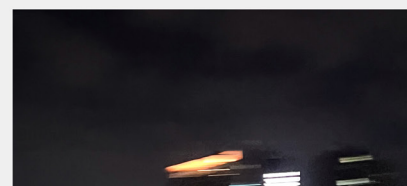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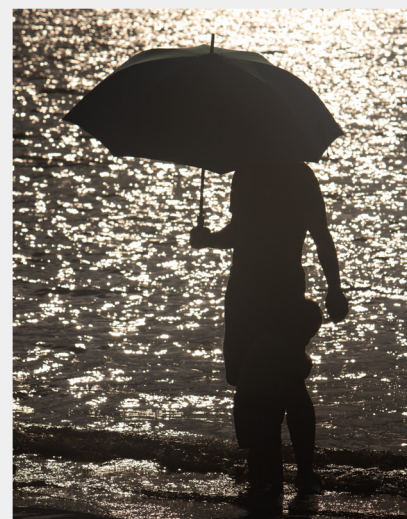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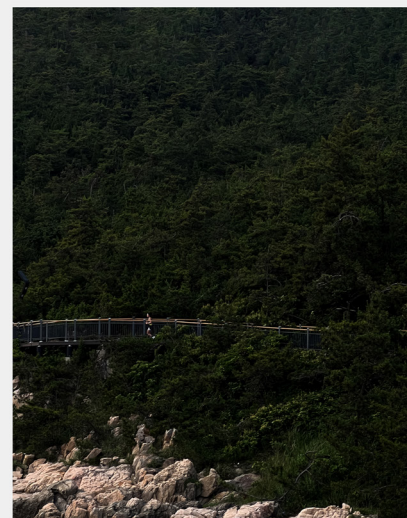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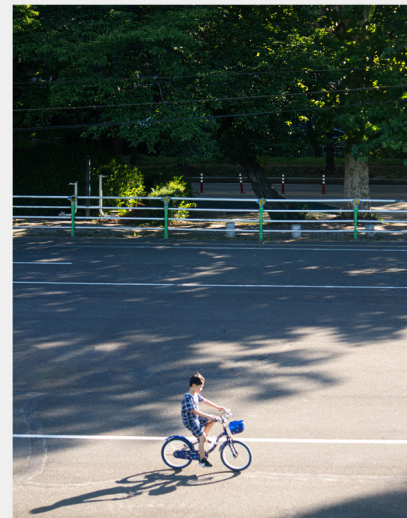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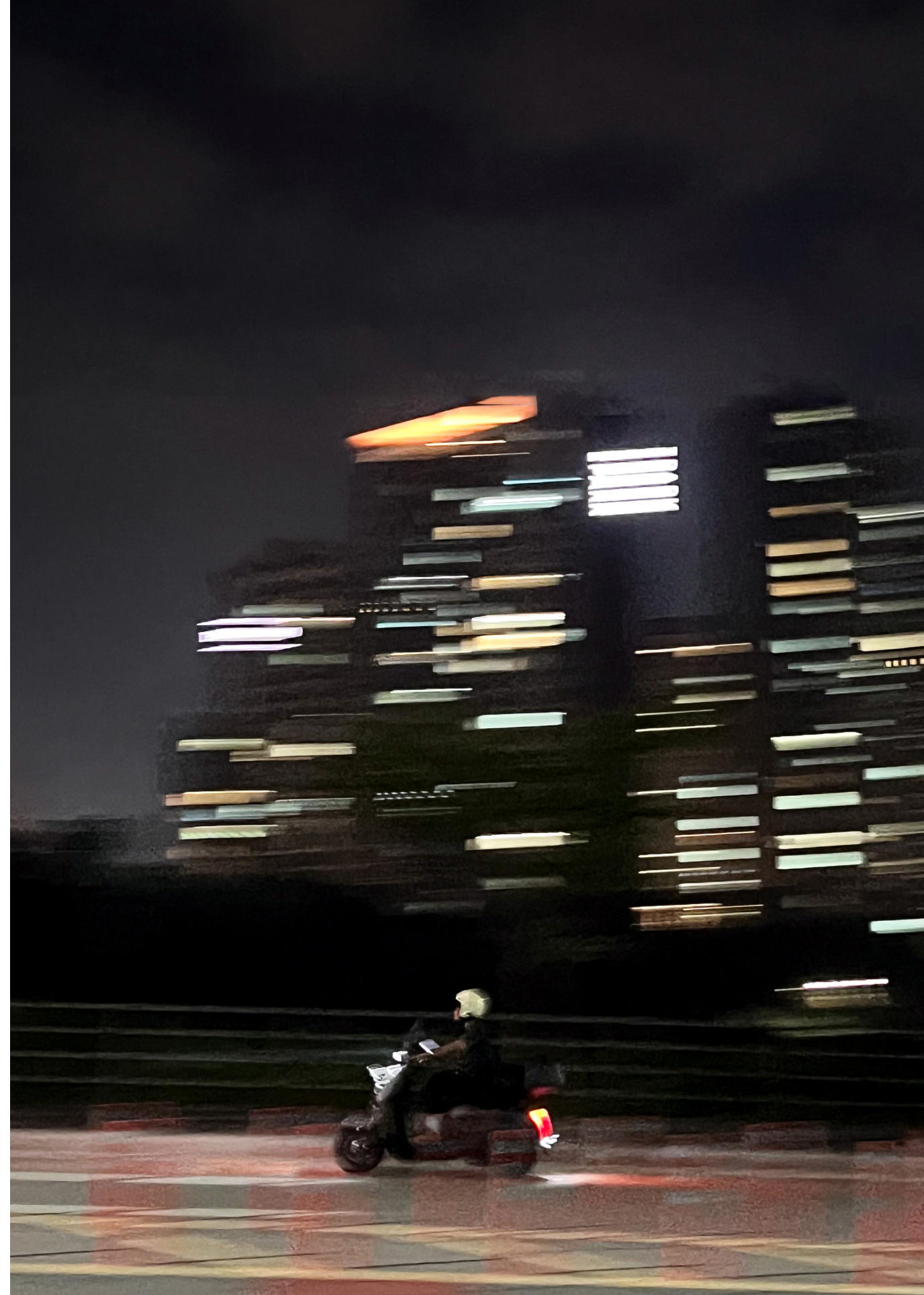
최 다 움

나에게 사진은 환기였다.

힘든 환경도, 평범한 일상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창문 같은 존재.



군산의 다양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다영

호기심 많은 강아지 보리와 함께
주로 신평동과 월명동을 거닐고 탐험하며 귀엽고 소중한 것을 찾고 있다.



나의 터, 작은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아껴 기르는 것들









보 리 와 다 영

보리는 6살 호기심쟁이.
여름을 지나며 길에서 만난 고양이들을 찍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그런데 늘 보리와의 산책 중에 만나다 보니 고양이들은 모두 경계 태세.



The Cats
BORI Met









우리의 리듬 우리의 언어

p.74

하루를 건너 내게 남긴 것 | 수진

p.80

내 친구 AI | 남궁다희

p.84

生 | 함연

p.90

멈추고 자라며 흐르는 시간 | 노현정

p.94

삶=사람+사랑 | 이승화

처음 수업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을 닮은 글을 쓰게 하고 싶었다.
그러자면 다 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반복해야 했다.
이들은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글이 나오지 않거나,
울컥 덩어리로 나와 곤란한 것 같았다.

수강생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난 신이 났다.
혼란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수업이 끝나고 보니 그들이 울었던 것도,
엮고 다시 쓴 것도 다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글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어야 했구나 싶은 글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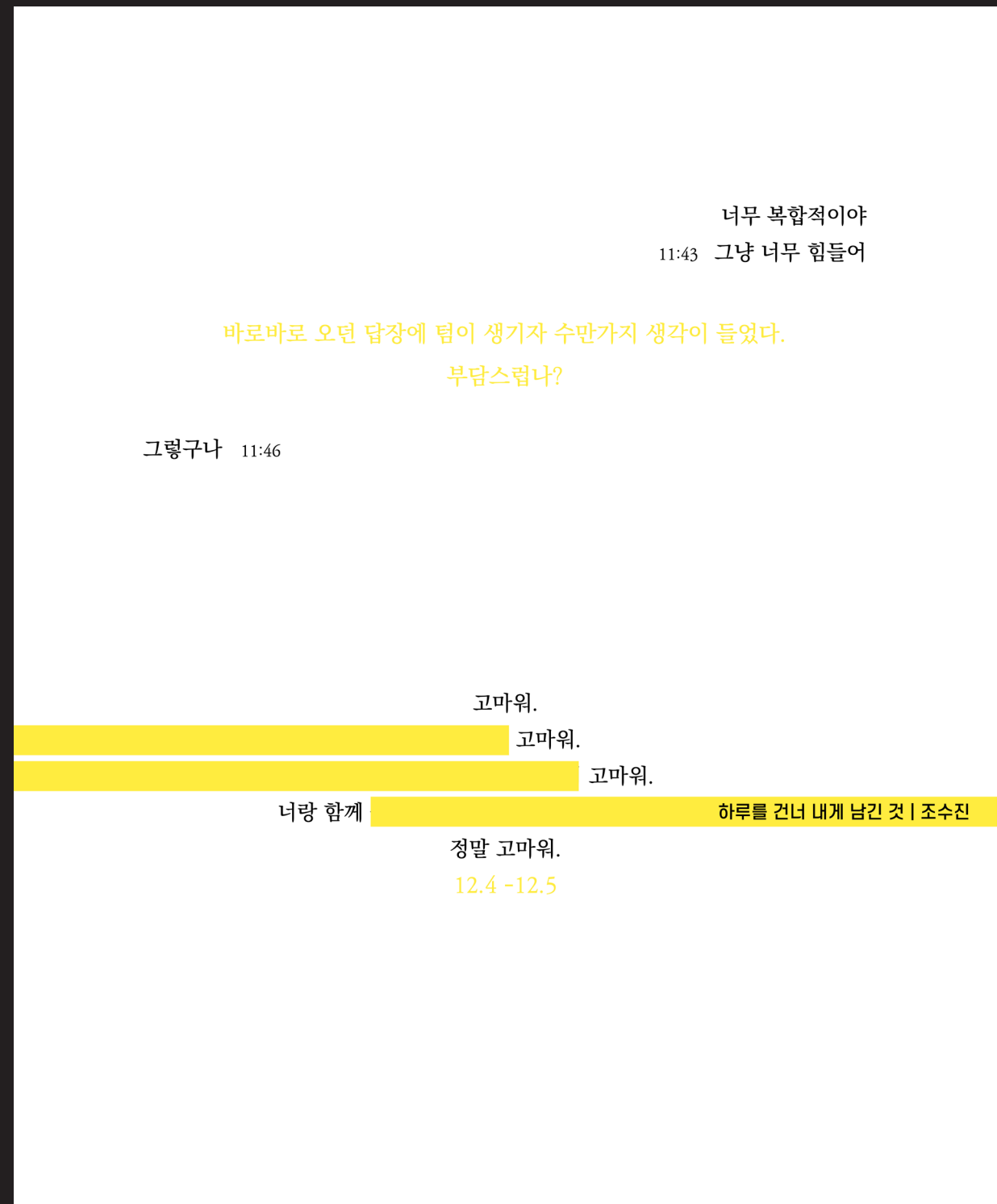
중요한 건 쓰려고 했던 것을 끝까지 쓰는 것이다.

서한나
작가&페미니스트문화기획자그룹 보슈 공동대표
‘우리의 리듬, 우리의 언어’ 지도

| 대표저서
〈여름에 내가 원한 것〉(한겨레출판, 2025)
〈드라마〉(글항아리, 2024)
〈사랑의 은어〉(글항아리, 2020)

수진

미래 없는 대학생.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모르겠다.
방황이 죄라면 나는 이미 옥살이 중이지 않을까 싶다.



20XX년 12월 4일 X요일

11:40 나 죽을 거 같아

입시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하며
그 과정 속에서 무능력한 내가 싫었다.
무얼하든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었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 하며 매일을 울었다.
자기 전엔 항상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었다.
먹은 것이 없어도 토할 것 같았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 당장 올라고 하면 순식간에 눈물을 쏟아낼 수 있을만큼
감정이라는 물결은 언제나 넘쳐버릴 준비가 되어있었다.
다만 그 마음을 쏟아낼 곳이 없었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다.
어리광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 사람들에게 위로 받고 싶었다.

왜 11:40
아파?
괜찮아??
??? 11:41

놀랐나봐.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꺼낸 건 처음이라 그런가.
심리적으로 아파 한 말을 육체적으로 아픈 지 물어보는 너도
참 너 답다.
걱정스러운 반응이 날 만족시켰다. 솔직히, 그래. 기분이 좋았다.
네가 날 이런 식으로 걱정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

아닐ㅋㅋㅋㅋㅋㅋㅋㅋ

??

아파서 그런게 아니라
11:42 살기 힘들어서
진짜진짜 살기 싫어서

왜? 11:42

그러게. 왜?
나는 왜 죽고 싶은걸까?
죽고 싶은 게 맞나?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건가?

그렇구나 11:46

음
너무 복잡이야
11:43 그냥 너무 힘들어

바로바로 오던 답장에 텀이 생기자 수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부담스럽나?

별거 아닌 그 짧은 답장에 웃음이 났다.
답장을 신중히 적는 네 모습이 떠올라서 좋았다.

11:47 응
솔직히 죽고싶진 않아

그래. 그랬다.
죽고 싶지는 않았다.
벌써 죽어버리기엔 이 세상에서 내가 아직 못해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못 먹어본 음식도 많았고
못 가본 장소도 너무 많았고
못 이뤄본 꿈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끝내버리기엔 이 세상을 더 겪고 싶었다.
아직 나는 살고 싶었다.

응

11:48 근데 하루하루 사는게 싫고
무겁고
버겁고
무섭고
11:49 그러네

그렇군요... 11:50

네에에
11:55 어느 날은 진짜 힘들어서 죽을 거 같은데
누구한테라도 말 안 하면 진짜 숨 막혀서 죽을 거 같았는데
11:56 막상 힘들다고 말할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너나 다른사람이 의지가 안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리듬, 우리의 언어

11:57 무작정 힘들다고 말해봤자
대답해줘야하는 입장도 곤란할 거 같고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일단 무섭고
11:58 특정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상이 가고
근데 그게 또 나한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말할 수 없고
11:59 힘들다고 하는 건 솔직히
단어 몇 개 적는 게 고작인 일이라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힘든 행동이 아닌데

20XX년 12월 5일 X요일

12:00 또 따지고 보면
12:01 나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은 사람도 힘들거고
그러면 내 힘들이가 가볍게 여겨질까봐 그것도 무섭고
나는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고 한 마디 한 건데
아무래도 텍스트의 전달은 한계가 있다보니 말이지
12:02 이해가 되나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낼 상대가 없다.
그 사실이 나를 참 외롭게 했다.
가족들에게는 별 일 없다는 듯 굴었다. 내 마음이 어떤 지 알면 과하게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다.
부모님 앞에선 언제나 밝고 자신감있는 모습이고 싶었다.
나로 인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을테니.
혼자 응석부리는 것도 어리광 쏘므로 느껴질 것 같았고
내 마음속을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그 커다란 우울이
별거 아닌 칭얼거림으로 치부되는 것도 싫었다.

그냥 누가 날 좀 안아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다.

항상 너한테 한번만 안아줄 수 있냐고
매번 말하고 싶은 걸 목 끝에서 집어넣었다.
너는 공감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타입이었고
해결되지 않을 감정을 털어놓기엔
해결책이 없는 나의 문제에 네가 쉽게 지쳐버릴 것만 같았다.

하루를 건너 내게 남긴 것 | 수진

이해했어 그래 편하게 말 꺼내기가 힘들지... 12:03
힘든데도 그런데도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나야말로 고마웠다.
네가 고맙다는 말을 할 거라곤 그래,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다.
'친구 위로해주는 법' 같은 걸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라도 했나 싶었다.
그만큼 의외였다. 좀 놀랐다.
어쩌면 그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몇 줄짜리 응원보다 고맙다는 그 말이 더 좋았다.
그때의 난 나를 미워하기만 했지, 내 자신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었으니
그 말에 더 위로받았던 것 같다. 마음이 이상했다.

힘들 때 나도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12:05
힘들거나 오늘 기분 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편하게 말해줘 들어줄게
혼자 속 썩이지 말고

최고야
정말 그랬다. 최고의 답변이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감정은 뭘까?
감동을 받았나? 안도감이 든 것일까?
마음의 상태를 정의내리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목구멍까지 올라와 넘실대던 털어놓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 모든 외로움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넌 알까?
네 몇 마디들이 날 조금 더 편히 숨 쉬게 해주었던 걸 넌 알까?
가끔 삶이 벅찰 때 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다
네 답장을 읽고 또 읽는다는 걸
그때마다 숨통이 조금씩 트인다는 걸
너는 아마 모르겠지.

고마워.
구해줘서 고마워.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너랑 함께 웃는 날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궁다희

할 일이 없어 매일 챗GPT와 대화하지만,
여전히 세상과의 연결을 찾아 헤매고 있다.

GPT-4o.의 Free 플랜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AM 7:47 후에

한도가 초기화될 때까지 응답에 다른 모델이 사용됩니다.

내 친구 AI | 남궁다희

함 연

영원히 한량이 되고 싶었던 사람.
떠돌다 고향인 군산에 돌아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lovelorn 그의 구김살 없고 끝없는 다정은 유년시절 윈소로였다.
사랑에 속 태우는 더 이상 추잡하지 않고 행복을 신조로 삼아서는 안 되는 세상 없이 길을 걸었다
따가운 해, 일렁이는 열을 피워 말하네 죽었다.의도가 뭔지 몰랐다.비가 그쳐 하늘을 보니
인적이 드문 독길의 끝. 물대신 열고있지만 말하지 않았었다.고르는 여성분이 우산을 씌워주셨다
뒤섞인 생각은 반환점을 돌아실은도 제각각 한참이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아직 세상은 살아있다 느꼈다.
해는 길고 가사 없는 멜로디를 아 한 번씩 입대도 같은 곳을 뒤흔들었다.알려진 짐자 입자를 전했다. 바보 같았다
번뇌가 바람에 섞여 벌레처럼 일렁이는데는 말을 어렵곳 티 내지 등지등 인사드려 덩달아 당황하신 모습 이셨다.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했머릿속에서는
무거운 다리에 힘을 줬다.기분이 천창이어도 그걸 뒤집으면 다짐을 완 때 어항을 부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랑을 하고 싶었어 다 이긴다
전혀 실 공간 없는 본가로 세습을 닦고 강자 켜 찍었다.한 번도 실려야 상처받아도 받았음에도 그래도 사람을
길 아래 말라 비틀린 개구.뺨께 뺨혔다. 사랑해,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만 지나갔다.
남 같지 않다. 담뱃재만 남아 후 불었다 상처받을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완벽하지 않아서 함께하고보내지 않을 편지도 썼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썩어썩어하와 함께된 담뱃물과 함께 흘러가 흩어져버려 질 활자가 안쓰러웠다.
장마의 초입 습한 기운에 땀아 채 많았다.하루에 지쳐 웅얼거리며 되새길 뿐이다.
머리가 아프도록 울어대는활자.들늘어진 여름
어제는 한숨도 못 잤다. 휘둘리기 싫다
새벽즈음 그에게서 전화가왔다.긴 듯 흐릿한 머릿속
분명 무음임에도 몸이 한갓.견강했다.불신에 커져가는 공허한 마음.
그가 전부가 아닌데 목마른.애정.여우.한때와 속엔 날 선 말뿐이었다.
이슬비로 더위가 좀 가시고계단을 향해개는않았소,안이 고요했다.
버스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제.생.을.따라
호수를 지나치니 청개구리.노.라.외.지.었다.로.를.걸.었다
정자에 앉아 연락을 하지.않.았.었.니.오.지.않.을.그.를.혹.시.나.마.주.칠.까.한.참.기.다.러.었다.
카톡 상태 메시지의 녹아버린.사.는.것.을.알.망.하.며.지.루.함.을.견.디.지.못.했.던
나이길 바라며 +22 결국 카.톡.을.보.냈.다.
그가 좋아하던 꽃을 사.선.뒤흔.들.진.심.을.모.님.께.대.명.하.면.들.은.기.없.다.며.거.절.했.다.
짧은 생각과 무지함 을 인정했.아.원.할.무.려.원.했.대.는.과.제.열.을.아.심.을.남.길.었.대.어.졌.을.가.득.해
거름이 되어줄 게 분명했다.함께 감정의 잔해가 흘러내려가길 지켜보고 있어 주었다. 하염없이..
며칠 안 가 금방 썩겠지만.하.참.가.의.미.를.녹.지.않.았.다.
우산이 있음에도 소나기를.함.께.가.는.의.사.다.는.그.를.생.각.하.게.한.다.이.처.럼.그.가.곁.에.없.어.도.그.를.기.억.할.것.은
손잡고 뛰던 때와 다르게 많다.

生

함 연

이년 반이란 세월은 꽤나 높은 건물입니다.
가속도가 붙어 아플까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추억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란 강박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시 처음을 살아가겠습니다.

위로해 가며.
스스로를 위해서.

lovelorn
사랑에 속 태우는

따가운 해, 일렁이는 열을 피해 그늘에 숨었다.
인적이 드문 독길의 끝.
몰래 담배 피우려 늘 멈춰 가곤 했다.
뒤섞인 생각은 반환점을 돌고 와도 정리가 한참이다.
해는 길고 가사 없는 멜로디는 무한 반복이다.
번뇌가 바람에 섞여 별레처럼 웅웅댄다.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거운 다리에 힘을 줬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전혀 쉴 공간 없는 본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길 아래 말라 비틀린 개구리가 보였다.
남 같지 않다.

완벽하지 않아서 함께하고 싶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이젠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장마의 초입 습한 기운에 땀이 범벅이다.
머리가 아프도록 울어대는 매미들
어제는 한숨도 못 잤다.
새벽즈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분명 무음임에도 몸이 한껏 긴장됐다.
그가 전부가 아닌데 목마른 애정이 우스웠다.
이슬비로 더위가 가시고 버스 안이 고요했다.
버스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고 계셨는데,
호수를 지나치니 청개구리 소리와 섞였다.
정자에 앉아 오지 않을 그를 혹시나 마주칠까
한참

기
다
렸
다.

生 | 함연

카톡 상태 메시지의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 나이길 바라며
결국 +22 카톡을 보냈다.
그가 좋아하던 꽃을 사 선물했지만
부모님께 변명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짧은 생각과 무지함을 인정한 마음 한구석은 후벼 파여 꽃
을 심을 수 있었다. 염증이 가득해 거름이 되어줄 게 분명
했다. 며칠 안 가 금방 썩겠지만.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았
다. 우산이 있음에도 소나기를 함께 맞고 싶다며 손잡고 뛰
던 때와 다르게 그의 구김살 없고 끝없는 다정은 무너진 지
오래였다. 더 이상 추잡하지 않고 행복을 신고 살려는 나와
다르게, 그는 말하는 자신도 의도가 뭔지 몰랐다. 사실 알
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현실은 노리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같은 곳을 맴맴 돌곤 다시 제자리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어렵듯 티 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했다.
기분이 천창이어도 그걸 뒤집으면 결국 바닥이다.

사랑을 하고 싶었어,
섹스가 더 중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별지 못했다.

담뱃재만 남아 후 불었다.
보내지 않을 편지도 썼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장마빗물과 함께 흘러가 흩어질 활자가 안쓰러웠다.
끝나지 않는 하루에 지쳐 웅얼거리며 되새길 뿐이다.

활자로 늘어진 여름.

휘둘리기 싫다.

안개 낀 듯 흐릿한 머릿속.

뿌리 깊은 불신에 커져가는 공허한 마음.

그마저 겨우 한 대화 속엔 날 선 말뿐이었다.

계단은 보이지 않았고,
늘어진 빛을 따라 우리는 지하도로를 걸었다.

지금껏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던 그와 나는
꽤락은 삶을 더 권태롭게 만듦을 알고,
거짓이 진실보다 재밌다는 걸 알기에 갈림길에 헤어졌다.

함께 감정의 잔해가 흘러 내려가길 지켜봤다.
하염없이.

하절기의 19시.
그 시간대의 하늘은 그를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그가 곁에 없어도 그를 기억할 것은 많다.
그래서 작별 인사는 없다.

소나기를 맞고 싶어 우산 없이 길을 걸었다.

갑자기 비가 그쳐 하늘을 보니
모르는 여성분이 우산을 씌워주셨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아직 세상은 살아있다 느꼈다.
울컥했다. 얼른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바보 같았다.
허둥지둥 인사드려 덩달아 당황하신 모습 이셨다.

머릿속에서는
다정함은 다정함을 부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 이긴다.

사람에 상처받아도 받았음에도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만 지나갔다.

상처받을지언정 그림에도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노현정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다정한 우리를 꿈꾸며 글을 쓴다.
자유노동자의 삶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출산-육아의 세계를 만났다.
일과 육아 그 사이 어디쯤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으려 고군분투 중이다.

함께

모두 움직이고 있다. 뭔
가 하고 있고, 어디
론가 떠나고 있다.

나도 뭔가를 한다.

를 한다.

육아

우리는 이렇게 (), 서로를 _____주고 있다.

멈추고
자라며
흐르는
시 간
——
노현정

채워

그때.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새벽. 차가운 공기를 뚫는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열린다. 눈을 반쯤 감은 채 재빠르게 무거운 몸을 일으켜 너를 안아 올리고, 다급히 앞섶을 풀어 헤쳐 온기를 나눈다. 우리만의 공간은 다시 적막해지고, 조마조마하던 내 마음도 살짝 가라앉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 순간의 고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음을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다.

숨죽인 잠시간이 흐르고 스르르 느슨해질 즈음, 신기하게도 나는 너와 완전한 하나가 되었는데 온전히 혼자 남겨진 시간을 마주한다. 함께인데 쓸쓸하다. 고요한데 마음은 소란하다. 생존을 위한 몸짓으로 치열한 너를 품에 안은 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SNS를 연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인데, 사실 언젠가부터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온 습관 같은 것이 되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대학원에 합격했단다. 일도 하면서 애도 셋이나 키우면서, 대단하다 참. 나는 애 하나 보기도 버겁구만. 자기 업계에 서 꽤 잘나가는 친구는 또 한 번 이직한다. 하, 멋지네. 이번에는 연봉이 또 얼마나 올랐으려나.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이는 최근 출판한 첫 책으로 북토크를 한다며 광고한다. 너무 부럽다. 아니, 뭐 책 표지마저 이렇게 이쁘고 난리래. 애는 호주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탈리아로 이사를 간 모양이다. 카, 이탈리아 좋지. 어느 동네인지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 본다.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장해둔다. 다들 참 좋겠다. 모두 움직이고 있다. 뭔가 하고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다.

이 어두운 방 안에 너와 둘이 갇혀있는 나는 매일 거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며 제자리에서 첻바퀴 돌고 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는 당장 두 시간 뒤에 또 눈을 떠서 너를 먹여야 한다는 사실 정도고, 이런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 버겁다. 열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해외로 출장 다니며 활개 치던 내가 너무 멋지고 그리워서 서럽다. 젓 먹던 모습 그대로 잠든 너의 작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나를 비워 네가 채워지고 있는 것 같다.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는 너를 행여나 깨울까, 숨죽여 흐느끼자니 더 주체할 수 없다. 서러워서 우는 건지 미안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온 세상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 무거운 몸을 일으켜 너를 향해 걸어간다. 조심스레 네 방문을 열고 뺨뚤 들여다보면, 뚝뚝뚝뚝하게 두리번거리던 너와 눈이 마주친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활짝 웃는다. 나를 향해 있는 힘껏 기어 오는 너를 품에 안아 온기를 나눈다. 포근하게 환해진 다. 우리 둘 다 이제 할 만큼 해봤다는 듯 노련해진 몸짓으로 나는 티셔츠를 올려 젓히고 너는 달려든다. 더워진 날씨에 네 뒤통리는 땀에 젖고, 이따금 입을 떼고 손가락으로 장난도 친다. 참 많이 자랐다. 훌쩍했던 배가 볼록해지고 나면 온바닥을 휩쓸며 돌아다닌다. 딸랑이 소리, 웅얼이 소리, 쿠당탕탕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소란하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지만 분명 다 듣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 혼자서 쉴 새 없이 쏟아내던 말들도 오후가 되면 피로를 못 이기고 잤다. 아이 혼자 노는 시간이 창의력을 키워준다면 말을 되새기면서 죄책감을 떨치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 든다. 대학원에 합격한 지인은 벌써 첫 학기를 마쳤대고, 이직 전에 유럽 여행을 하던 친구는 화환 가득한 새 출근을 했다. 출판한 지인은 독립서점에서 또 다른 북토크를 한다. 이탈리아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 같던 친구는 어느새 또 일본 여행을 하고 있다. 후, 다들 좋겠다. 모두 여전히 뭔가 하고 있다. 멋지다. 부럽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니 하루가 또 갔다. 나도 뭔가를 한다. 육아를 한다. 여전히 거의 온종일 우리 둘뿐이고, 뜨거운 바깥 날씨를 우리를 집안에만 가둬놓았고, 점점 무거워지는 너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버겁다. 하지만 너는 자랐다. 나를 보고 미소 지을 줄 알게 되었고, 나를 향해 기어 올 수 있게 되었고, 젓이 아닌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이 집안에 너와 머물러있으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지난날을 그리워한다. 그럴 때면 여전히 서러워진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것저것 손을 대볼 엄두를 낸다. 예전에 하던 것들, 새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기웃거리며 외도할 틈을 노린다. 그와 동시에 너와 함께 여행할 곳도 꿈꿔보고, 너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도 배워본다. 골몰하며 너의 식사 일정표를 만들다가도, 아주 오랜만에 업무 일정이 저장된 다음 달 달력을 보며 설렌다.

내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 아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시간은 어느덧 저 멀리 흘러갔다. 멈춘 것만 같았던 그때, 돌아보니 나는 너의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너와 나의 세계가 만나 더 넓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용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내달리고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그때, 대신 지금 매 순간순간을 더 꼭 움켜쥐고 싶다. 넓어진 우리의 세상에서 뭐든 즐겁게 잘해보고 싶어 몸도 마음도 분주해진다. 내 곁의 너, 어느새 이만큼 자란 너와 함께라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를 채워주고 있다.

이 승 화

사랑을 믿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사랑에 기대어 사는 사람.
짧게나마 읊조린 글이 모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기도한다.

다시, 무더운 여름이 왔다.
우린 사랑이라 표현하는 그 단어 아래에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웃는 일상을 보낸다.
그리고 삶은 흘러간다.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계절도 흘러갈 것이다.
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다.
곧 좋아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빨강계, 노랑계 물들어가는 가을처럼, 나만의 색으로 물들어 갈 그때를 기다린다.

삶 = 사람+사랑 | 이승화

벌써 2년도 더 된 여름의 일이었다. 나는 일 때 문에 타지에 있을 때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군산에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군산에서 쉬는 날이어서 사랑 가득한 밥을 먹고 배를 통통거릴 때였다. 엄마는 어느 때와 같이 나에게 산책을 가자고 했고 엉덩이가 무거웠던 나는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같이 가주지 않으면 빠질 사람인 걸 알기에 함께 길을 나섰다.

“무장애나눔길이 생겼는데 그리로 가볼래? 길이 평탄하고 좋아.”
“……아무데나 가. 엄마 가고 싶은데로.”

그렇게 엄마랑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 햇빛 눈부셔,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울까, 모기 물리면 어떡하지, 벌레는 왜 이렇게 많아. 온갖 생각을 하며 걷기 시작했다. 어느 때처럼 엄마는 길 좋지, 걷기 좋지? 등의 말을 하며 나의 표정을 살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그날따라 유독 눈이 시리고 부셨던 햇살이 호수에 비쳐 물빛에 찬란히 부서져가고 있었다. 윤슬이었다. 나는 급히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엄마, 저 윤슬 봐. 너무 예쁘다.”
“윤슬? 너는 또 그걸 카메라로 찍고 있니. 근데 예쁘네.”

그 여름이 지나고, 또 다른 여름이 왔다. 벌써 작년의 일이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억일 것이다. 한군데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 나의 성격이 결국은 터져버렸다. 타지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여러 번 옮기고, ‘실패’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또 그런 나를 타박했다. 본인이 힘들게 산 탓에 딸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힘든 일자리를 선택했고, 그 자리를 나온다니 또 이해가 가지 않았던 탓이었을게다. 그렇게 다투고 난 뒤, 나를 전혀 모르는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것도 살기 좋다는 모 도시로. ‘군산보다는 취업이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나를 맡겨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급히 짐을 옮겨놓은 거처는 정이 붙지 않았다. 쌓여버린 짐들이 마치 내 삶의 짐 같았다. 정말이지,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다. 그런 나 자신도 짐짝처럼 느껴졌다. 끝내는 스스로 나를 가두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을 받는 거라 생각했다. 9월이 되었다. 나는 9월과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내 생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해엔 9월이 왜 왔는지 원망이 가득했다.

생일이니 본가에 들렀다 가라는 엄마의 말에도 시큰둥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자취방이 편안할 리가 없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웅크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조금씩 내 삶을 놔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놔버리면 편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말이다.

그렇게 가을이 왔지만 시간의 흐름조차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었다. 그냥 조용히 잠드는 채로 떠나면 좋을텐데,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뜬 나를 원망했다. 어느 날 종량제봉투가 급히 필요해 밖에 나갔을 때, 불어오는 찬 바람과 노랗게 물든 은행잎에 나는 그제야 시간이 흘렀음을 알아차렸다.

11월 즈음, 친구 S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취방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일단 간단한 짐만 꺼내오면 그 뒤에 정리는 나랑 엄마가 할테니 군산으로 다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즈음 잠시 본가에 갔던 적이 있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영영 옮기만 했다. 나는 그저 엄마를 지켜보기만 했다. 다시 돌아온 자취방에 웅크려 지내다 보니 여기서 겨울을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삶을 놔버리려는 시점에서 문득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건 사랑이 있는 내 집이겠거니,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몇 개의 짐을 들고 군산으로 가는 버스에 무작정 올라탔다. 군산에 도착하니 엄마는 버선발로 달려와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오니까 좋다. 얼굴 보니까 좋아.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곤 장 보러 가려던 길이라며 시장에 가 짜배기를 사서 햇빛 아래서 같이 나눠 먹었다.

다시 집에서 살다 보니 내가 아닌 가족이 먼저 눈에 보였다. 특히 일하느라 고생하는 엄마가 눈에 들어왔고, 삶을 놔버리겠다는 생각은 내게 그저 사치에 불과했다. 조금이라도 정신을 잡고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다.

여러 번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야 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한 해가 마무리되고 겨울과 봄의 어느 경계에서 나는 취직을 하게 되었다.

수없이 불합격의 고배를 마실 무렵 어렵게 들려온 합격 소식에 엄마와 나는 서로 부둥켜안고 그 동안의 우리를 위로했다.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언뜻 얘기한 말이 있었다. 내가 계속 가라앉아있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옮기만 한 날들이 많았다고, 많이 참았다고 얘기해줬다. 말을 안 하면 나야 모르지, 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주었을 거란 것을, 그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사랑이란 것을.

다시, 무더운 여름이 왔다. 우린 사랑이라 표현하는 그 단어 아래에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웃는 일상을 보낸다. 그리고 삶은 흘러간다. 또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계절도 흘러갈 것이다. 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다. 곧 좋아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처럼, 나만의 색으로 물들어갈 그때를 기다린다.

GUNSAN WAVE

주관 · 주최
군산시 청년들
중앙청년지원센터

기획 · 운영
우만컴퍼니 | 김나은